

#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정권안보 추구하고 정책 변화\*

김강석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및 외교 정책 노선은 내부적·외부적 위협에 맞서 정권안보를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하에서 나타난다고 평가될 수 있다. 우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은 국가 방위부와 같은 국가 기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왕가 내부의 잠재적 위협 요인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 비전 2030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온건 이슬람 국가로의 개혁은 사우드 왕가의 정당성에 도전해 온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한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란으로부터 외부적 위협에 직면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면서 이스라엘과의 화해를 도모하고 있다. 대내외적 위협하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강구하는 국내외 정책 변화 양상에 내포된 정치적 의도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대내외 위협, 정권안보, 정책 변화

## I. 서론

현재 중동 정치 질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행보는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튀니지를 공식 방문하자 튀니지에서는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되었다. 자스민 혁명 이후 총리직을 수행한 바 있는 하마디 제발리(Hamadi Jebali) 튀니지 전 총리는 자신의 아랍어 페이스북에서 젊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문은 “자유, 정의, 그리고 인권의 가치에 토대한 튀니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2A3055268). 이 논문은 『다양성+아시아(DiverseAsia)』 Vol. 1, No. 2(2018)에 등재된 것을 수정, 보완함.

지 혁명과 그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튀니지 방문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튀니지 입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김강석, 2018c).

또한 2018년 10월 반정부 성향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살해 사건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국제적 논란을 가중시킨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자말 카슈끄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간의 연계 의혹이 제기되었고, 밥 코커(Bob Corker), 랜드 폴(Rand Paul), 린지 그래함(Lindsey Graham) 미국 의회 의원 등도 살해 배후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 내의 일부 비판적 논조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했다. 이는 이란 정책을 둘러싼 공조, 유가 조절자 및 무기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선택의 측면을 갖고 있다(김강석, 2018b).

한편 2018년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의 운전 면허 허용 조치를 취하고, 남녀 공존의 이크틸라트(Ikhtilat)<sup>1</sup> 시대를 가능하게 했다(엄익란, 2018). 이러한 개혁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이들은 개방화와 온건 이슬람 노선 강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구조하에서 자신의 정책적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sup>2</sup> 따라서 사우디 비전 2030하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노선은 사회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층의 공감을 얻고 있으며, 이로써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개혁적 지도자로 간주되어 왔다.

<sup>1</sup> 이크틸라트(ikhtilat)는 “사우디 사회의 남녀 관계를 공간적인 차원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사전적 의미는 ‘섞임’을 뜻하며, 사회적 맥락에서는 남녀가 학교, 쇼핑몰, 일터와 같은 공적 공간에서 서로 공존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엄익란, 2018).

<sup>2</sup> 1950년 약 312만에 불과하던 사우디아라비아 인구는 2017년에 약 3,293만 명(외국인 약 1,050만 명, 자국민 약 2,250만 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인구의 약 70%는 30세 미만으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한다(Friedman, 2017; United Nations, 2017).

이와 같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권위주의적 지도자 혹은 개혁의 아이 콘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둘러싼 상충된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그의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왕세자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위협과 정책적 변화 간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대내외 정책 노선이 사우드 왕가 내부의 잠재적 권력 갈등, 무슬림 형제단과 사흐와(Sahwa)<sup>3</sup>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의 대내적 위협, 그리고 이란이라는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정권안보를 도모하려는 정치적 의도하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해 온 부패와의 전쟁, 온건 이슬람 국가로의 국내 정치적 개혁 노선,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이스라엘과의 화해를 포함한 대외 전략 변화 양상에 주목하면서 젊은 왕세자의 정치적 의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 II. 왕가 내부의 잠재적 위협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국가 통제력 강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왕가가 통치하는 국가로 1932년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Abdulaziz Ibn Saud)에 의해 제3사우디 왕국이 건립된 이래 압둘아지즈의 직계 아들들이 왕위를 승계해 왔다. 압둘아지즈 국왕은 형제 계승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아들 중에서 왕위가 안정적으로 승계되도록 유연했고, 이후 형제 계승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형제 왕위 승계 과정의 역사는 압둘아지즈 국왕의 바람대로 순탄치만은 않았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와 부족적 연

<sup>3</sup> 사흐와(Sahwa)는 무슬림 형제단의 이념에 고무된 사우디아라비아 사회 개혁 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살만 알 아우다(Salman al Awdah), 아와드 알 까르니(Awad al Qarni), 알리 알 오마리(Ali al Omari)와 같은 사흐와에 고무된 종교 학자들을 제거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Ibrahim, 2019).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형제단의 형성과 발전 및 사우드 왕가와와의 관계 변화 양상에 관해서는 홍미정(2018)을 참조할 것.

계가 매우 중시되는 강한 모계 연대 사회 구조하에서 질루위(Jilawi), 수다이리(Sudairi), 샴마르(Shammar) 등 가문 간의 대립이 나타났고, 1975년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Faisal bin Abdulaziz) 국왕의 암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발발하기도 했다(황병하 외, 2011: 241-245). 이와 관련하여 마다위 알 라시드(Madawi Al-Rasheed)는 1953년 압둘아지즈 국왕의 서거 이후 밀실 협약에 의한 왕위 승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왕가 내 권력 갈등을 언급한 바 있다(Al-Rasheed, 2018).

잠재된 권력 경쟁 구도 속에서 사우드 왕가 내의 동복형제들은 강한 연대 의식을 형성하며 권력 창출을 모색해 왔다. 일례로 소위 수다이리 7형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내에서 가장 주요한 권력 핵심을 구성해 왔는데 파흐드 빈 압둘아지즈(Fahd bin Abdulaziz) 전 국왕(2005년 타계), 술탄 빈 압둘아지즈(Sultan bin Abdulaziz) 전 왕세제(2011년 타계), 나예프 빈 압둘아지즈(Nayef bin Abdulaziz) 전 왕세제(2012년 타계) 그리고 살만 빈 압둘아지즈 현 국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권력자들은 자신의 가문 인사를 주요한 보직에 임용해 왔는데, 모친이 샴마르 출신이었던 압둘라 국왕은 재직 시절 샴마르 가문의 인사를 국가 방위부(Ministry of the National Guard)에 다수 등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의 모계 연대 중시와 왕가 내 동복형제의 연대 의식은 왕위 승계 과정에서 권력 갈등을 유발하는 변수가 될 수 있었다(황병하 외, 2011: 241-245).

한편 2015년 압둘라 국왕이 서거하면서 등극한 살만 국왕은 이복형제인 무크린 빈 압둘아지즈(Muqrin bin Abdulaziz) 왕세제를 폐위시키고,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왕세자로, 자신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을 부왕세자로 지목했다. 이를 통해 압둘아지즈 국왕의 아들인 형제 세대 왕위 계승의 역사는 드디어 손자 세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왕세자를 역임했던 무함마드 빈 나예프는 2017년 6월 권력 갈등 논란 속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왕세자 직위를 위임한다. 살만 국왕의 등극 이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지명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 과정은 사우드 왕가 내부의 온갖 권력 투쟁설을 야기하는 빌미가 되었다. 특히 2017년 가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부패 청산을 이유로 유력한 왕자를 구금하는 조치를 취하자 왕실 내분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신병 이상설이 언론

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8년 6월 무함마드 빈 자이드(Muhammad bin Zayed)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회동과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 참가로 이러한 언론의 추측은 잘못된 해프닝으로 판명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의 권력 갈등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권력 창출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하여 34명의 왕실충성위원회(Allegiance Council, Hayat al Bayah) 위원 중에서 31명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역대 어느 국왕보다 많은 최다 득표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Time Interview, 2018). 2006년 10월 압둘라 국왕은 칙령을 통해 ‘충성위원회법’을 공포하여 외척을 배제하고 압둘아지즈 국왕의 살아 있는 아들과 손자들, 현 국왕과 왕세자로 구성되는 왕실충성위원회를 통해 왕세제를 지명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왕위 승계 과정에서 자행될 수 있는 국왕의 독단 전횡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이원삼, 2012: 94). 이러한 왕실충성위원회를 통해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로 등극한 만큼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통적인 왕실 내의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Al-Rasheed, 2018). 따라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함으로써 왕권 승계 과정에서의 도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고 평가된다.

국가의 통치 권력 공고화는 정권안보 유지에 핵심적 요소가 되며, 권위주의 정권은 정보기관, 군과 경찰 등 강압 기구를 활용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바 벨린(Eva Bellin)은 중동의 다수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강압 기구의 유지 및 강화를 도모해 왔다고 설명한다(Bellin, 2004: 147). 왕세자 등극 과정에서 권력 갈등설에 연루되었던 무함마드 빈 살만은 자신의 왕세자 등극 이후 국가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7년 11월 강력한 부패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국가 방위부 장관인 무타입 빈 압둘라(Mutaib bin Abdullah) 왕자, 억만장자로 알려진 알 왈리드 빈 탈랄(Al Waleed bin Talal) 왕자를 비롯한 왕실 내부의 유력 인사들이 리야드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에 체포,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인터뷰에서 부패와의 전쟁 선포는 음성적으로 사라지는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

하기 위한 것으로서 1,000억 달러가 넘는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O'Donnell, 2018). 따라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은 유가 하락 등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부패와의 전쟁 선포는 정권안보의 유지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자신의 개혁 조치에 반발하며 왕위 승계 과정에서 도전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불안 요인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과거 부패 청산을 정적 제거 및 권력 공고화에 활용하고자 했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비유하는 시각도 존재한다(Trofimov, 2017). 특히 무타입 빈 압둘라 왕자가 이끌어 왔던 국가 방위부를 온전히 장악한 것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권력 공고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방위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규군에 대항하는 견제 역할을 염두에 두고 1960년대에 공고화되었다. 즉 1950-1960년대 아랍 민족주의 팽창에 고무되어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군부 쿠데타가 지속적으로 발발하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확고한 후견-피후견 관계에 기초하여 왕실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국가 방위부를 강화하여 쿠데타 발발 가능성을 저지하려 했다(Al-Rasheed, 2017).

압둘라 전 국왕의 장남인 무타입 빈 압둘라 왕자는 엘리트 군인으로 구성된 국가 방위부의 전권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해 왔다. 특히 국방 장관을 역임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비록 정규군을 장악해 왔다 하더라도 국가 방위부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는 권력 갈등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시행한 부패와의 전쟁 선포와 그에 따른 국가 방위부의 장악은 왕가 내부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정권안보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III. 급진 이슬람주의의 도전과 온건 이슬람 국가로의 변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하에서 산업 다각화를 통해 지대추구 국가에서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생산 국가로의 경제 구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래 비전에서 이슬람 관광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광산업 육성, 세계 대륙을 잇는 허브 구축, 의료 부문 활성화 등의 다양한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적 개혁을 표방하면서 온건 이슬람 국가로의 국가 정체성 변화를 아우르고 있다. 일례로 2018년 6월 24일에 발표한 여성 운전 허용 조치는 온건 이슬람 국가로의 정체성 확보를 상징하는 주요 조치로 간주된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업가인 아내 카디자(Khadija)를 위해 일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무슬림 여성 권익 신장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단기간에 개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Time Interview, 2018). 특히 사우디 비전 2030하에서 흥해관광 단지 개발, 상업영화 상영 허용 등 개혁 조치와 함께 급기로 여겨지던 예술, 관광, 오락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장세원 외, 2018: 78).

그런데 이러한 온건 이슬람 노선으로의 개혁 조치는 사우드 왕가가 직면한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정권안보 유지라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타임(Time)』지와의 인터뷰에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잘못된 급진 이슬람주의가 침투하게 되었고, 이러한 왜곡된 이슬람을 축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Time Interview, 2018).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메카, 메디나의 두 성지 수호자(Khadim al-Haramain)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문제시하며 사우드 왕가의 통치 정당성을 비판해 왔다. 예를 들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직면하고 있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의 위협에 관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Time Interview, 2018).

사우디아라비아는 극단주의 이념의 가장 큰 희생자이다. 만일 내가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극단주의자 또는 테러리스트라면 나의 이념을 전파하고 동조자를 모집하

고자 할 것이다. 어떤 곳에서 이러한 모집이 용이하겠는가? 모로코나 말레이시아로 가야 할까? 이는 결코 아니다. 나는 이념 전파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자 할 것이다. 무슬림의 끼블라(Qibla, 예배 방향을 의미함)가 있는 곳으로 정한다. 성지를 보유한 나라로 가야 한다. 만일 내가 그곳에서 급진주의를 전파할 수 있다면 다른 어느 곳이든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1979년 이후 일어난 현상으로 모든 극단주의 세력과 테러리스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교두보로 삼고 전 세계로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고자 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급진 이슬람주의 제거 시도는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대항으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급진 이슬람주의에 대한 종식을 강구하면서 내부의 정적으로서 무슬림 형제단에 맞서며 카타르, 터키, 이란 등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권력을 유지, 강화하려고 시도해 왔다(홍미정, 2018: 32-33).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무슬림 형제단과 연계된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숙청하고, 이들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해 온 교육 체제를 타파하며, 무슬림 형제단의 영적 지도자인 유수프 알 까라다위(Yusuf al Qaradawi)를 옹호해 온 카타르에 대한 자금 유입 차단을 모색해 왔다(홍미정, 2018: 33). 따라서 2017년 6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카타르 단교 사태의 배경은 무슬림 형제단을 둘러싼 갈등이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 무슬림 형제단에 우호적인 담론이 중동 전역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유수프 알 까라다위에 대한 카타르의 옹호는 카타르 단교 사태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남옥정, 2017).

1926년 이집트에서 출생한 유수프 알 까라다위는 무슬림 형제단을 창설한 하산 알 반나(Hasan al Banna)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나세르 정권에서 무슬림 형제단을 억압하자 1961년 이집트를 떠나 카타르로 이주한 유수프 알 까라다위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카타르 내 이슬람 기관을 재정비하고, 이슬람 교육 제도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카타르 왕가와 긴밀한 유착 관계를 구축한 유수프 알 까라다위는 알 자지라 방송에서 개설한 ‘샤리아와 삶’이라는 방송 코너에 고정 출연하면서 아랍 전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로 발돋움했다. 매주 3,500만 명 이상이 시청하면서 큰 인기를 누린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무슬



림 형제단을 옹호해 왔다. 일례로 2013년 ‘샤리아와 삶’을 통해 이집트 국민들이 세속적 정부를 전복시키고 무슬림 형제단에 대항하는 세력과 전쟁을 벌일 것을 주장했다(Warren, 2017). 따라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카타르 단교 사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의 도전 요인으로 간주되는 무슬림 형제단을 옹호해 온 카타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우디 비전 2030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건 이슬람 국가로의 개혁 이면에는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급진 이슬람주의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우디 왕가 내부의 정치적 도전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이란의 위협인식 증가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대외 전략

### 1.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 관계 강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사우디 왕가에서 직면한 최대의 외부적 위협을 이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그의 적대적 인식은 2018년 제프리 골드버그(Jeffrey Goldberg)와의 인터뷰 내용에 잘 드러난다. 인터뷰를 통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중동 국가를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고 “이란, 무슬림 형제단, 순니 테러 집단”을 “악의 삼각 지대(triangle of evil)”로 규정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보다 독일의 히틀러가 더 나은 지도자라는 원색적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Goldberg, 2018; 김강석, 2018a).

이란 혁명을 주도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는 와하비즘을 이단으로 비판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타락한 왕정 국가로 규정하면서 사우디 왕가에서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비난했다(유홍태·한인택, 2016: 153). 또한 이란 혁명 직후인 1979~1980년 사우디아라비아 내 시아 무슬림들에 의한 반정부 운동이 크게 격화되었다(Al-Rasheed, 2010: 141-

142). 이란 혁명 이후 고조되어 온 이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적대감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 레바논, 예멘 분쟁 등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대리전적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적대감과 위협 인식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對)이란 위협 인식 고조는 양국 간의 안보딜레마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과 같은 주요 사건을 계기로 중동 역내 세력균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 간 국가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유홍태·한인택, 2016: 142). 이 밖에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면한 내부적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관심전환이론<sup>4</sup>의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조망하는 분석도 제기된다(유홍태·한인택, 2016: 141-142; 송상현, 2016).

이러한 다양한 배경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사우드 왕가에서는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5월 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는 아랍연맹 정상회의, GCC 정상회의 그리고 이슬람협력기구 정상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었고, 라마단 기간에 열린 메카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고조된 이란 위협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포함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GCC 정상회의에서 이란이 중동 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테러 행위를 후원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협력을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Al-Rasheed, 2019; 김강석, 2019b).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 대한 전략적 공조 강화의 차원에서 미국과의 동맹 결속에 집중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이란을 둘러싼 정책적 이견 속에서 갈등적 양상을 보였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09년 3월 이란의 국경일인 노루즈 축하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 전체를 적대시하지 않음을 말하며 페르시아 문명의 위대성, 이슬람의 관용”에 대해 언급했다(인남식, 2018). 대(對)이란 우호 정책의 관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sup>4</sup> 관심전환이론은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즉 국내불안정이 국제분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주목하는 것으로 관심전환이론의 핵심적 요소는 “국내정치적 도전에 직면한 지도자에게 국제 분쟁을 일으킬 요인을 제공한다”는 국내결집효과(rally-round-the-flag-effect)를 포함한다(정성철, 2013: 392).

는 2015년 7월 이란 핵 협상 타결인 포괄적행동계획(JCPOA)을 성사시키고,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했다. 그런데 이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유화적 태도는 전통적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균열 양상을 보이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강화는 동맹 관계의 형성에 핵심 변수로 제기되는 위협인식의 온전한 공유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Walt, 1987).

마이클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2018년 말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이란 정책 기조는 전방위적 경제제재의 지속, 억지 전략 등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ompeo, 2018).<sup>5</sup>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리비아 군사 개입 등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를 인지하고 있는 워싱턴은 군사적 옵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억지 전략의 관점에서 카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사령관이 이끄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의 정예 부대인 쿠드스(Quds) 여단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김강석, 2019b).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 기조를 탈피하고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이란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2019년 1월 카이로 연설을 통해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억압적 정권이 창출된 지 40주년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란이 정상국가로 변모할 때까지 확고부동한 경제 제재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9; 김강석, 2019a). 이란에 대한 이러한 위협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도자 간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sup>5</sup>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대한의 압박으로 집약되는 전방위적 경제 제재의 지속을 통해 이란에서 연계된 역대 단체(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시아 무장 세력 등)에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이란의 핵무장 및 군사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억지(deterrence)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Pompeo, 2018).

## 2.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화해 추구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친이스라엘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부가 주변 아랍 국가와 우호 관계를 창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 걸프 국가들은 1948년 이스라엘 국가 건립 이후 변모되어 온 이스라엘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Rahman, 2019).<sup>6</sup>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구축 계획으로 알려진 ‘세기의 거래(Deal of the Century)’를 지지하며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Hatuqa, 2018).

이러한 관점에서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고 난 이후 성사된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회동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경제 지원을 제안하고 세기의 거래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홍미정, 2019). 또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3월 뉴욕에서 열린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팔레스타인 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고, 4월 제프리 골드버그(Jeffrey Mark Goldberg)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스라엘의 영토 주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Goldberg, 2018; 김강석, 2018a). 이 밖에도 2019년 4월 카이로 아랍연맹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와 함께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에게 세기의 거래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다(홍미정, 2019).

한편, 세기의 거래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온전히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9년 6월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 백악관 선임 고문에 의해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은 발표되었지만 팔레스타인 국가의 성격, 예루살렘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sup>6</sup> 이와 관련하여 폼페이오 장관은 2019년 1월 카이로 연설에서 걸프 국가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 유도 선수의 우승에 따른 이스라엘 국가가 연주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9; 김강석, 2019a)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이스라엘 하욘(Israel Hayom)』은 보도를 통해 세기의 거래는 이스라엘,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하마스 삼자 간의 협정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크며, 세기의 거래로 탄생할 새로운 팔레스타인 국가는 온전한 주권 국가 형태는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Middle East Monitor, 2019). 나아가 새로운 팔레스타인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제외한 서안 지구 일부와 가자 지구의 영토를 갖게 되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아부 디스(Abu Dis)가 새로운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Middle East Monitor, 2019). 이러한 세기의 거래의 내용에 대하여 오슬로 협정에서 지향했던 ‘영토를 위한 평화(peace for land)’라는 테제가 ‘평화의 번영(peace to prosperity)’으로 수정되면서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팔레스타인인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Fraihat, 2019). 세기의 거래에 대한 아랍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아랍의 대의보다는 정치·경제적 국익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2018년 10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의 오만 공식 방문 이후 바레인 등 주변 아랍 국가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공식적 관계 수립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Rahman, 2019; 남욱정, 2018). 이스라엘 정책 결정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자국에 유리한 형태로 해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란의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한 공동의 안보적 이익 창출과 경제적인 협력 필요성은 양국 간 화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사우디 비전 2030하에서 추진되는 네옴(NEOM) 스마트 시티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양국이 협력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chindler, 2017; 김강석, 2018a). 이러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실질적으로 구

<sup>7</sup>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전의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 2001년 압둘라 당시 왕세제는 제2차 인티파다의 발발 속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워싱턴을 압박했고, 2002년 3월 베이루트에서 개최된 아랍연맹 정상 회담에서 승인된 아랍 평화안(API: Arab Peace Initiative)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김강석, 2018a).

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지만 경제적 협력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양국 협력의 다양한 동인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실질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양국 지도자 간의 신뢰 축적, 아랍 대중의 지지 확보,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대이스라엘 관계 개선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것 등이 필요해 보인다(김강석, 2018a).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카슈끄지 사태, 예멘 내전 등으로 정치적 공세를 받아 왔는데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비난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야 할 것이다(Ayoob, 2018).

이 밖에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살만 국왕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간의 이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살만 국왕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라는 두 국가 안(two-state solution)을 기본적으로 지지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살만 국왕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팔레스타인 문제 접근 방식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사우드 왕가 내부의 정책적 일관성을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Ayoob, 2018).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화해가 '사실상의 동맹(de facto alliance)'으로서 견고한 협력 관계로 발전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화해로 끝날 것인지 양국 관계의 향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국내 및 외교 정책 변화 양상을 내부적·외부적 위협에 따른 정권안보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왕위 승계를 둘러싼 왕가 내부의 잠재적 갈등 요인,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한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의 대내적 도전, 그리고 정적인 이란의 대외적 위협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국내 정치적 개혁과 대외 전략 변화를 야기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해 온 강력한 부패 개혁 조치는 국가 권력의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왕가 내부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국가 방위부를 온전히 장악하고, 왕실 안의 도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정권안보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시도한 온건 이슬람 국가로의 개혁 조치는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의 사우드 왕가에 대한 위협에 맞서서 권력을 공고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유수프 알 까라다위를 견제해 온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무슬림 형제단의 내부적 위협에 맞서 정권안보를 추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동의 정치적 역학 관계 변화 속에 이란에 대한 위협인식이 고조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균열적 양상을 보이던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이스라엘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정권안보의 변수와 국내외 정책 간의 연계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개혁 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이 더욱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젊은 층의 공감과 지지 확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혁을 견인하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정치·종교 보수 세력의 반발은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왕가 내부의 잠재된 권력 갈등 구도하에서 개혁에 대한 왕실 내부 보수주의자들의 반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대내외적 개혁 성패의 관건은 보수 세력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무마하고, 젊은 층의 공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 참고 문헌

- 김강석. 2018a. “무함마드 빈 살만과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관계 개선.” 『GCC Report』, No. 132.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 김강석. 2018b. “카슈끄지 사태와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동맹.” 『GCC Report』, No. 142.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 김강석. 2018c.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집트, 튀니지 방문.” 『GCC Report』, No. 145.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 김강석. 2019a.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카이로 연설과 중동 전략동맹 구상.” 『GCC Report』, No. 149.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 김강석. 2019b. “미국의 대 이란 공세적 전략과 이란의 저항.” 『GCC Report』, No. 158.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 남옥정. 2017. “카타르 사태 본질에 선 인물, 유수프 알 까라다위.” 『GCC Report』, No. 109.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 남옥정. 2018. “결프국가와 이스라엘 관계 확대 징후, 무색해진 아랍 대의.” 『GCC Report』, No. 143.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 송상현. 2016.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의 갈등 배경.” 『GCC Report』, No. 60.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 유흥태·한인택. 2016.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결정 요인과 전개 방향.” 『한국과 국제정치』 32(1), 137-162.
- 엄익란. 2018. “2018년 6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과 ‘이크틸라트(남녀 공존) 시대 도래.’ 『GCC Report』, No. 133.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 이원삼. 2012.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층의 노령화와 권력 승계도 연구.”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22(1), 85-109.
- 인남식. 2018. “트럼프 이후 혼돈의 서아시아: 두 정치 신화(神話)의 복원.” 『다양성+아시아』(DiverseAsia) Vol. 1, No. 1.
- 장세원·김강석·남옥정·엄익란. 2018.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미래비전 분석과 한국의 유망 협력분야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9(2), 73-96.
- 정성철. 2013. “관심전환전쟁이론: 논리와 증거.” 『한국정치학회보』 47(5), 389-405.
- 홍미정. 2018.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슬림 형제단: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알 사흐와.” 『중동문제연구』 17(4), 29-75.



- 홍미정. 2019. “팔레스타인 주권을 박탈하는 트럼프의 기획: 미국-이스라엘-사우디 동맹.” 『GCC Report』, No. 156.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 황병하·김강석·김선하·김화선·최지원. 2011.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연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Al-Rasheed, Madawi. 2010. *A History of Saudi Arabia*.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Rasheed, Madawi. 2017. “The night of the long knives in Saudi Arabia.” in *Middle East Eye* (2017/11/05) ([www.middleeasteye.net/columns/night-long-knives-saudi-arabia-1884539620](http://www.middleeasteye.net/columns/night-long-knives-saudi-arabia-1884539620)).
- Al-Rasheed, Madawi. 2018. “‘Only death’: How Mohammed bin Salman has torn up the rules of kingship.” in *Middle East Eye* (2018/03/21) (<http://www.middleeasteye.net/columns/what-could-prevent-mohammed-bin-salman-becoming-king-1428554577>).
- Al-Rasheed, Madawi. 2019. “Mecca summits: Saudi Arabia is using holy sites to score political goals.” in *Middle East Eye* (2019/05/30) (<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mecca-summit-saudis-turn-muslims-and-arabs-will-never-be-replacement-us>).
- Ayoob, Mohammed. 2018. “3 Benefits of an Improved Saudi-Israeli Relationship.” in *The National Interest* (2018/12/27)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3-benefits-improved-saudi-israeli-relationship-39942>).
- Bellin, Eva R. 2004. “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s* Vol. 36. No. 2.
- Fraihat, Ibrahim. 2019. “The ‘deal of the century’ as a deliberate deception.” *Al Jazeera* (2019/06/29) (<https://www.aljazeera.com/indepth/opinion/deal-century-deliberate-deception-190628144450709.html>).
- Friedman, Brandon. 2017. “Saudi Arabia’s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Between Transformation and Confrontation?” in *The Tel Aviv Notes*, Vol. 11, No. 18 (2017/11/27) ([https://dayan.org/content/saudi-arabia’s-crown-prince-mohammed-bin-salman-between-transformation-and-confrontation#\\_ednref13](https://dayan.org/content/saudi-arabia’s-crown-prince-mohammed-bin-salman-between-transformation-and-confrontation#_ednref13)).
- Ibrahim, Arwa. 2019. “What is Sahwa, the Awakening movement under pressure

- in Saudi?” in *aljazeera* (2019/06/05)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sahwa-awakening-movement-pressure-saudi-190603100555782.html>).
- Goldberg, Jeffrey. 2018. “Saudi Crown Prince: Iran’s Supreme Leader ‘Makes Hitler Look Good.’” in *The Atlantic* (2018/04/02)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8/04/mohammed-bin-salman-iran-israel/557036/>).
- Hatuqa, Dalia. 2018. “Muhammad bin Salman Has Thrown the Palestinians Under the Bus.” in *Foreign Policy* (2018/06/25) (<https://foreignpolicy.com/2018/06/25/mohammed-bin-salman-has-thrown-the-palestinians-under-the-bus/>).
- Middle East Monitor. 2019. “Israel newspaper publishes terms of ‘deal of century.’” in *Middle East Monitor* (2019/05/08)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190508-israeli-newspaper-publishes-terms-of-deal-of-century/>).
- O’Donnell, Norah. 2018. “Saudi Arabia’s heir to the throne talks to 60 Minutes.” in *CBSN Interview* (2018/03/19) (<https://www.cbsnews.com/news/saudi-crown-prince-talks-to-60-minutes/>).
- Pompeo, Michael R. 2018. “Confronting Iran: The Trump Administration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97, Issue 6.
- Rahman, Omar H. 2019. “What’s behind the relationship between Israel and Arab Gulf states?” in *Brookings* (2019/01/28)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01/28/whats-behind-the-relationship-between-israel-and-arab-gulf-states/>).
- Schindler, Max. 2017. “Israeli Companies Talking to Saudi Arabia about \$500b. ‘Smart City.’” in *The Jerusalem Post* (2017/10/25) (<https://www.jpost.com/Business-and-Innovation/Israeli-companies-likely-talking-to-Saudi-Arabia-about-500-bil-smart-city-508429>).
- Time Interview. 2018.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Talks to TIME About the Middle East, Saudi Arabia’s Plans and President Trump.” in *Time* (2018/04/05) (<http://time.com/5228006/mohammed-bin-salman-interview-transcript-full/>).
- Trofimov, Yaroslav. 2017. “In Saudi Purge, Echoes of Putin and Xi.” *The Wall Street Journal* (2017/11/06) (<https://www.wsj.com/articles/in-saudi-purge-echoes-of-putin-and-xi-1509989119>).
- United Nations.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key findings & advance

tables.” The 2017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Publications/Files/WPP2017\\_KeyFindings.pdf](https://esa.un.org/unpd/wpp/Publications/Files/WPP2017_KeyFindings.pdf)).

U.S. Department of State. 2019. “A Force for Good: America Reinvigorated in the Middle East.” (2019/01/10)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9/01/288410.htm><https://www.nytimes.com/2017/11/05/>).

Walt, Stephen M. 1987.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Warren, David H. 2017. “Qatari Support for the Muslim Brotherhood is More than Just Realpolitik, it has a Long, Personal History.” in *Maydan Politics & Society* (2017/07/12) (<https://www.themaydan.com/2017/07/qatari-support-muslim-brotherhood-just-realpolitik-long-personal-history/>).

## Abstract

## Saudi Crown Prince Muhammad bin Salman's Search for Regime Security and Policy Changes

Kangsuk Kim The GCC Institute, Dankook University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pursued by Crown Prince Mohammad bin Salman of Saudi Arabia seem to demonstrate a strategic intent to improve regime security by countering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Mohammad bin Salman's intention to declare war on corruption can be seen as a means of eliminating potential internal threats by strengthening his control of state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the National Guard. In addition, the reformist measures promoting a more moderate Islam in Saudi Arabia under Saudi Vision 2030 can be considered to reflect political intentions that eradicate radical Islamic groups including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has maintained hostility toward the Saud royal family. Moreover, facing external threats from Iran, Saudi Arabia is seeking rapprochement with Israel, and full restoration of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Continued analysis is necessary to fully evaluate the political intentions behind Muhammad bin Salman's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strategy.

**Keywords** | Saudi Arabia, Muhammad bin Salman, Threat, Regime Security,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